'맛 관광 1번지' 목포 식도락 맛집 적극 발굴

시, 내달 대상업소 선정…SNS 홍보·메뉴판 제작 등 지원 숙박·음식업소 점검반 구성해 친절·위생 서비스도 강화

목포시가 '대한민국 맛의 수도 1번지'를 표방한 목포만의 '식도락 맛 집(M -Food) ' 활성화에 나서 주목된다.

목포시는 올해 1000만 관광객 방문의 해를 맞아 음식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목포만의 맛 집을 홍보·지원하고 숙박시 설과 음식점에 대한 친절·위생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먼저 목포만의 식도락 맛 집(M-Food) 개발을 위해 중저가 한식을 취급하 는 일반음식점(100m² 이상)을 대상으로 지난 달 공문을 발송해 수요조사를 실시했

시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3월 평 가단을 구성해 현장실사와 심의를 거쳐 대 상 업소를 최종 선정한 뒤 플래카드와 메 뉴판 제작, 입식 테이블 등 각종 지원 사업

을 펼칠 계획이다.

또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음식 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와 SNS,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시 보건소는 관내 일반음식점 415 개소와 숙박업소 131개소 등 546곳을 대상 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눠 친절·위생 서비스 강화에도 나선다.

시 보건소는 이를 위해 5개반 10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바가지요금 근절 · 영업자 준 수사항 점검 · 식중독 예방 등의 활동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위생업소 및 숙박업소 영업주를 대상 으로 친절교육과 함께 자정 결의대회를 오 는 4~6월에 개최하고, 20개소의 'Happy Family' 숙박업소를 지정, 운영하기로 했



목포시가 '목포만의 맛집'을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음식점을 상대로 플래카드와 메뉴판 제작, 입식 테이블 등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친다. 목포 북항 어시장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목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해 목포만의 맛 집을 발굴해 이를 홍보·지원하는 한편, 숙박 및 음식점

에 대한 친절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체류형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다음달 새롭게 선보여

모바일 환경·SNS 연계 강화

목포시가 이용자 중심 서비스와 모바일 환경 및 SNS연계 기능 강화를 위해 '목포 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목포시는 지난 22일 공무원과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9월부터 추진 중인 목포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 및 고도화 용역에 대한 추진상항 점검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문화관광 홈페이 지는 목포시 공식 홈페이지의 사이트로 지 난 2011년 10월 변경·운영돼 왔으나 최신 트렌드인 스마트폰과 SNS 등 변화된 미 디어 환경과 연동이 미흡했고, 디자인과 편의성 등이 이용자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 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 인 ▲이용자 중심 서비스 ▲모바일 환경 및 SNS 연계 기능 강화 등 최신기술이 적 용된 서비스를 도입해 새로운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오는 3월 중 정식 선보일 예정

김종진 목포시 관광과장은 "이번 문화 관광 홈페이지 개편은 목포를 방문하고자 하는 방문객에게 이용자 중심의 양질의 관 광 정보를 제공해 오는 8월 개통할 해상케 이블카와 함께 목포시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수협, 카페·금융 결합한 서울 독립문지점 개점

립문지점을 개점했다.

목포수협은 지난 21일 서울시 종로구에 고객에게 금융상품 서비스와 문화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카페형 금융 영업점 독립

목포수협 독립문지점은 고객이 좀 더 편 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는 상호금융 고객의 니즈에 따라 고객이 가장 친근하게 느끼는 원목과 적벽돌 스틸

독립문지점(지점장 유종기)은 2월 한 달 간 수도권 최고 금리 수준인 연 2.528% 예 탁금과 연 3.7%의 '바다야 고맙다' 자유 적금 등의 특판 상품을 출시하여 고객을 해 동반성장 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 2.528% 예탁금에 가입한 가입자 는 비과세 혜택(만64세 이상 5000만원)이 주어지며 '바다야 고맙다' Sh적금은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 예적금 상품으로 '바다 모래 채취금지 대국민 서명', '깨끗하고 아 름다운 바다를 위한 약속' 서명 운동과 '그 린체크 카드' 신규 발급 시 기준금리 연 2. 2%에 0.6%포인트가 가산된다. 이는 2018

김청룡 조합장은 "목포수협 상호금융 성장의 전초기지가 될 독립문지점은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랑방 역할도 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복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익 산 공 장: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1(용제동) Tel.063-835-4771



목포시가 청년 일자리 정책 마련을 위해 '우리들의 소소한 이야기(小談笑談) 토론 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말 열린 목포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정책 토론회 모

청년 일자리 정책, 청년들이 직접 참여

시 '小談笑談 토론회' 개최 청년 정책위원회도 운영

"청년과 함께 만드는 청년 일자리 대 책을 마련하라."

목포시가 청년들의 현실에 기반을 둔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 마련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목포시는 청년들이 정책형성에 참여 하는 방식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목포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 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일자리 대책 토론 모 임인 '청년 동행' 31명과 '청년 희망 뿌 리단' 7명, '목포 청춘항' 10명 등 소규 모 그룹과 분기별로 1년에 4차례 토론 회를 개최하는 '우리들의 소소한 이야 기(小談笑談)'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관 위주 토론회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청년 일자리 카페 등 청사 밖에서 이번 토론회가 진행되 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는 목포시 SNS 홍보단과 지역 대학 학생회·동아리 등과 연계해 온라 인을 통해서도 청년 일자리 의견을 적 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목포시 청년정책 전반 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위해 경제·사 회·교육·문화·여성 등 각 분야별 민·관 합동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목포시 청년정책 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목포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이 들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 한 소통・공감・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27·28일 개최

목포복지재단, 목상고서

목포복지재단(이사장 이혁영)이 신 학기를 앞두고 27일부터 28일까지 목상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사랑의 교복 물 려주기'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30여만원 가량의 교복 구입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선배가 기증한 교복을 후배가 물려 입어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취 지로 마련됐다.

지역 30개 중·고등학교가 참여해 동 복·하복·체육복 등 5500여점이 수집됐 다. 특히 덕인중, 문태중, 하당중, 덕인 고, 목포고, 마리아회고, 문태고 등에서 많은 학생들이 동참했다.

수거된 교복은 재능봉사자인 한국세 탁업중앙회 전남지회와 목포사랑봉사 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자원봉사자 150 여명의 봉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중순 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세탁·수 선 등의 손질 과정을 거쳤다.

목포복지재단 김황용 사무국장은 "경제 불황으로 교복 구입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 행사가 어려운 가 계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복 물려주기 행사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1년째로 지난해까지 3만2130여점을 1만250명 에게 제공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박홍률 목포시장 목포해양대서 명예박사

박홍률 목포시장이 목포해양대서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목포해양대학교는 지난 23일 민선6기 시정을 흔들림 없이 이끌면서 지역사회 발 전과 대학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해 박 시장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고 25일 밝혔다.

이날 박성현 총장은 "목포해양대가 미 래 해양산업을 선도하고 신해양시대의 원 동력이 될 글로벌 대학으로 재도약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며 "민선6기 목포시정도 내실 있게 운영하며 목 포 발전을 위해 노력하 고 있다"고 수여 배경 을 설명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답사를 통해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는 개 인적으로 큰 영광이며 목포해양대 동문과 한 가족이 됐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면서 "그 동안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 원을 아끼지 않은 시민 여러분과 영광을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목포수협이 첫 카페와 금융이 결합한 독

로 디자인 됐다.

유치, 수협은행과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

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합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